

영재와 일반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분석: 개인-중심적 접근의 활용*

신 이 나

손 원 숙[†]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학교 학습자들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유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프로파일 측면에서 영재와 일반학생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각 프로파일별 학습자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소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D광역시 소재의 3개 중학교 1학년 240명과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영재 96명 등 총 336명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숙달목표 및 수행목표(접근, 회피)가 모두 높은 '적극형(31.3%)', 숙달 경향만이 높은 '숙달형(22.3%)', 3개의 성취목표가 모두 평균 수준에 근접하고 가장 많은 중학생이 분류된 '평균형(35.1%)', 반면 모든 유형의 성취목표지향성이 낮은 '무기력형(11.3%)' 등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분포의 성별 및 영재성에 따른 차이는 아직 영재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영재집단에서는 일반집단에 비하여 '적극형'의 비율이 약 32%정도 더 높았고, 상대적으로 '무기력형'이 약 11% 정도 낮았다.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에 따른 학습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숙달 또는 수행 접근 경향이 높은 '적극형'과 '숙달형'의 경우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고, 학업 소진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형'이나 '무기력형'의 경우는 자기효능감이 낮고,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소진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재성과 프로파일 간에는 자신감과 불안 측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적극형의 영재는 일반학생보다 더 높은 자신감을 가졌지만, 무기력형의 영재는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같은 학습자의 동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유형에 따른 이질적인 심리적 특성은 추후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는 점이 논의되었다. 또한 기존의 변인-중심적 접근법과 비교하여 개인-중심적 접근법이 성취목표지향성 연구에 주는 방법론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업소진, 군집분석, 개인-중심적 접근, 영재

* 본 연구는 신이나의 석사학위논문(2012년 2월, 지도교수 손원숙)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손원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E-mail : wsohn@knu.ac.kr

최근 20여년 동안 국내·외 교육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다루어진 심리적 구인 중 하나는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일 것이다(Baron & Harackiewicz, 2001; Tuominen-Soini et al., 2008). 성취목표지향성은 성취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유로써 정의되며, 개인이 성취를 추구하고, 경험하고, 해석하는 틀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Elliot, 1999). 또한 이는 학습자의 자기조절, 자아개념, 내적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도 강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면에서 교육장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박병기, 이종욱, 2005; 이주화, 김아영, 2005; Pintrich, 2000).

현재까지 진행된 성취목표지향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많은 이론적인 발전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전통적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습자의 유능감을 정의하는 방식(competence-defined framework)에 따라 2요인 모형이 제안되었다. 즉, 유능감을 개발하거나 과제를 숙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숙달목표’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유능감을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행목표’ 등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었다(Dweck, 1986; Nicholls, 1984).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수행목표 지향성이 관련 변인들과 정적, 부적 때로는 유의하지 않은 등 비일관적인 상관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어(Elliot & Church, 1997; Elliot & Harackiewicz, 1996), 수행목표를 다시 접근/회피 국면으로 분화시키는 3요인 모형이 제안되었다. 한편 숙달목표 구인은 관련변인들과 비교적 안정적인 상관 양상을 보임으로써 3요인 모형에서는 접근/회피 동기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수행목표 지향성과의 연계성 및 많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숙달목표도 ‘숙달접근’대 ‘숙달회피’ 구인으로 분화되는 4요인 모형이 제안되고 검증되었다(박병기, 이종욱, 2005; 이주화, 김아영, 2005; Elliot, 1999; Elliot & McGregor, 2001; Pintrich, 2000). 이처럼 성취목표지향성의 요인구조는 초기에는 2요인 모형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3요인, 4요인 구조로 변화되어 왔지만, 각 요인 모형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2-, 3-, 4- 요인 모형은 모두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화된 모형이 보다 단순한 모형에 비하여 성취목표지향성을 이해하고, 관련 변인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 유용한 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Barron & Harackiewicz, 2001; 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한편 성취목표지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 ‘변인-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기법이다. 전통적인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요인분석법,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서, 각 하위 요인과 특정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게 된다. 예컨대, 숙달목표와 내적동기, 수행목표와 외적동기 등의 관련성을 밝히고, 이들 관계는 해당 모집단 내에서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모집단 내에서 존재하는 변인과 변인 간의 평균적인(nomothetic) 관련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독특성(idiographic) 혹은 특수성은 밝힐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두 번째 연구 분야는 각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고, 또한 학습자들은 한 개 이상의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다는 ‘중다목표관점(multiple

goal perspective)’에 기반한 연구를 들 수 있다 (Barron & Harackiewicz, 2001; Harackiewicz, et al., 2002; Midgley et al., 2001).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취목표지향성의 각 하위구인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3개 또는 4개의 성취목표를 모두 추구하는 집단의 비중이 높았고,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성취목표지향성의 중다목표관점은 경험적인 연구(박병기, 이종욱, 2005; 양명희, 오종철, 2006, 한순미, 2003)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 표본 내에는 어떠한 유형의 성취목표 프로파일이 존재하며, 가장 이상적인 프로파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성취목표지향성의 다차원적인 요인구조와 중다목표관점은 방법론적으로 변인-중심적 기법을 통하여 해결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예컨대, 성취목표지향성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각 하위구인의 개별 효과뿐 아니라 각 하위구인 간 상호작용(e.g., 3차 이상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분석해야 하는 통계적 복잡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다목표의 관점을 반영한 연구문제 즉, 한 개인 내에는 숙달과 수행 목표가 어떠한 조합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성취목표지향성의 프로파일과 기타 심리적 특성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처럼 성취목표지향성과 관련된 연구는 변인-중심적 기법에 기반한 연구로부터 많은 이론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중심적 기법(person-centered approach)(Magnusson, 1998)의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은 유사한 속성(attributes)을 갖고 있거나, 속성들 간의 관련성 측면에서 유사한 개인들의 집단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

라서 한 변인이 또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집단내에서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하는 전통적 접근과는 달리, 이 접근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집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중다목표관점에 기반하여서 개인-중심적 접근법 중 하나인 군집분석(cluster analysi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 대상이 고등학생이 많았고, 초등학생(김유진, 2009)이나 중학생(신현숙 외, 2010)의 경우는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별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표본 선정에 있어서, 일반학생뿐 아니라 영재집단을 포함시켜서 영재집단의 성취동기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성취목표지향성의 프로파일이 영재성과 같은 하위집단별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탐색할 수 있고, 각 성취목표지향성의 프로파일의 성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영재들의 성취목표지향성 유형에 주목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소수(나동진, 2010)에 불과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의 학습자 특성까지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재집단을 포함하여서 이들의 성취동기 유형이 일반학생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동일한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을 갖더라도 영재와 일반학생 간에는 어떠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성취목표지향성 연구 분야에서도 개인-중심적 기법에 주목한 국내외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고(김유진, 2009; 신현숙 외, 2010), 이들 연구에서는 각 프로파일에 속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심리적 변인을 투입하고 있다. 예컨대, 학업성취,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및 부모의 양육태도(곽미숙, 2009), 자기조절학습(김유진, 2009), 암묵적 지능(국중학, 2009), 학습기술(신현숙 외, 2010), 회피경향 및 학점(Pastor et al., 2007)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별로 인지적 성취가 아닌 정의적 성취 또는 적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Tuominen-Soini,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생의 성취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 1986)과 함께, 주관적 안녕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앞으로 수행할 행동이 성공적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수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응적인 학습자 특성에 하나의 준거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학업소진은 학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고갈, 학업에 대한 냉소, 그리고 낮은 개인적인 성취감 등의 형태(Schaufeli et al., 2002)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업과 관련된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경우, 학습자들은 어떤 사회적 보상보다는 학습 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조승우, 김아영, 1998), 학업적 적응이 긍

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Tuominen-Soini et al., 2008) 반면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되는가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학습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자신의 높은 능력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낮은 능력을 감추려는데 있다. 따라서 수행목표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은 숙달목표의 경우보다 그 강도가 낮을 것이고, 소진의 경향도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회피경향이 높은 학습자들의 경우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업과 관련된 자신감 및 효능감, 학업적 적응이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Salmela-Aro, Tolvanen, & Nurmi, 2009). 이처럼 각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 구인과 해당 심리적 구인간의 관련성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는 프로파일별로 보이는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성취목표가 혼합되어 있는 프로파일별로 자기효능감과 학업소진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지, 즉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학습자가 가장 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 수행접근, 수행회피 등 3요인으로 구성된 성취목표지향성 척도(Midgley et al, 2001; 조준한, 2010)를 사용하여, 중다목표의 관점에서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프로파일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영재교육진흥법, 2011). 본 연구에서는 한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에서 선발된 중1의 수학 및 과학 영재들을 의미한다. 한편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별로 학습자의 특성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소진의 수준으로 측정할 것이다. 또한

각 프로파일별 학습자 특성이 영재와 일반집단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적인 양상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변인 중심적 접근이외에 개인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성취목표지향성 연구가 갖는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의 프로파일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도출된 프로파일의 분포는 영재성(영재와 일반집단)과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갖는가? 셋째, 영재성과 프로파일 유형별로 자기효능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영재성과 프로파일 유형별로 학업소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이다.

방 법

연구 절차 및 대상

2011년 7월 12일에서 7월 16일까지에 걸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업소진을 포함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성’은 영재와 일반학생을 나누는 기준으로 정하고, 영재는 한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한 수학 및 과학교과의 기본지식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통하여 ‘영재’로 선발된 중1 학생으로 한정한다.

연구 대상은 총 336명이고, 이 중 240명(72.4%)은 D광역시 소재의 3개의 중학교 일반학급에서 표집되었고, 나머지 96명(28.6%)은 A 영재 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중1 학생이었다. 영재 및 일반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른 분포

표 1. 성별 및 영재성에 따른 연구대상 분포

	남	여	전체
영재	74	22	96
(%)	(77.1)	(22.9)	(100.0)
일반	121	119	240
(%)	(50.4)	(49.6)	(100.0)
전체	195	141	336
(%)	(58.0)	(42.0)	(100.0)

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영재에서 77.1%, 일반에서 50.4%를 차지하여, 영재 집단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 및 영재성에 따른 연구대상자 분포는 표 1에 요약되었다.

측정도구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준한(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원척도는 Midgley와 동료들이 개발한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cales(PALS)』중 ‘성취목표지향성 척도(Personal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Midgely et al., 2000)이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3개의 하위 영역 즉 숙달목표(5문항), 수행집근(5문항), 수행회피(4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 등 Likert 식 6점으로 구성된 응답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목표지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숙달목표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고 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행접근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고, 수행회피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취목표지향성의 신뢰도(Cronbach α)는 숙달목표 .81, 수행접근 .88, 수행회피 .81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이고,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선호(5문항) 등 총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및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과제난이도선호’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 등 Likert 식 5점으로 구성된 응답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각 하위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아영, 1997)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신감 .74, 자기조절효능감 .79, 과제난이도 선호 .73, 전체 .8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90이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신감 .85, 자기조절효능감 .90, 과제난이도선호 .79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학업소진 척도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S-SS)를 이영복 외(2009)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에게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무능력(5문항), 반감(5문항), 불안(5문항), 탈진(5문항), 냉담(5문항) 등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무능력’은 공부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 ‘반감’은 공부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 ‘불안’은 공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관련된 내용, ‘탈진’은 공부로 인해 지친 상태, ‘냉담’은 공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등으로 정의한다.

각 문항의 응답 척도는 Likert 식 5점(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하위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지각한 학업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중학생 타당화 표본의 신뢰도(이영복 외, 2009)는 무능감 .89, 반감 .90, 불안 .81, 탈진 .85, 냉담 .83, 전체 .92 수준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학업소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고, 각 하위요인별로는 무능감 .91, 반감 .94, 불안 .79, 탈진 .89 및 냉담 .90 등으로 선행연구와 비교적 유사한 수준이었다.

통계적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에 의해 처리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위하여 수행된 통계적 분석 절차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을 도출하기 위해 3개의 군집변인 즉, 숙달목표, 수행접근 및 수행회피의

표준점수(z점수)를 사용하였다. Hair와 Black (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방법 즉, 1단계에서는 계층적 방법인 Ward의 방법, 2단계에서는 비계층적 방법인 K-means 방법을 실시하였다. 두 단계의 군집분석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여, 프로파일의 일치정도, 분류된 사례수의 일치정도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근거로 최적의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한편, 각 군집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준거로써, 선행연구(국중학, 2009)의 해석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z점수 상에서 평균 0을 기준으로 $\pm 2.5SD$ 는 평균 수준, 평균 범위 밖 $\pm 5.0SD$, 즉, ± 7.5 까지는 높음 또는 낮음, 그 밖의 범위는 매우 높음과 매우 낮음으로 해석한다. 둘째, 성별과 영재성에 따른 프로파일의 분포 차이를 알아 보기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재와 일반학생의 프로파일 유형별로 자기효능감 및 학습소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재성과 프로파일을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학습소진의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이원 다변량 분석(two-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이는 하위척도 간 상관성이 고려되고, 각 하위구인이 나타내는 차별적인 프로파일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차이의 소재(locus)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원 단변량분석(two-way ANOVA),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및 주효과(main effect)에 대한 사후분석을 위하여 각각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및 Tukey 분석이 실시되었다.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표 2에 제시된 각 척도 내 하위구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성취목표지향성은 .44~.76, 자기효능감은 .35~.50, 소진은 .45~.71 수준으로 어느 정도 변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각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습자 특성변인으로 포함된 자기효능감과 소진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숙달목표지향은 자기효능감 전체 하위구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 불안을 제외한 모든 소진의 하위구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 수행접근과 수행회피지향은 자기효능감의 일부 구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그 상관의 크기 역시 숙달접근에 비하여 작았다. 또한 소진의 경우, 수행접근과 수행회피는 대체적으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일부 구인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거나, 그 상관의 크기가 숙달지향에 비하여 작았다. 수행접근의 경우는 소진의 ‘불안’ 하위구인과 정적인 상관($r=.14, p<.01$)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성취목표지향과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주요 변인들의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성취목표지향성 및 자기효능감 하위구인 모두에서 영재의 평균이 일반학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5$). 불안을 제외한 소진의 모든 하위구인에서는 일반학생이 영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p<.05$), 불안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3개의 성취목표지향성 즉, 숙달목표, 수행접

결 과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 (n=336)

변인명		1	2	3	4	5	6	7	8	9	10	11
1	숙달목표	-										
2	수행접근	0.45**	-									
3	수행회피	0.44**	0.76**	-								
4	자신감	0.17**	-0.01	-0.01	-							
5	조절효능감	0.57**	0.29**	0.28**	0.35**	-						
6	과제난이도	0.40**	0.10	0.13*	0.40**	0.50**	-					
7	무능력	-0.32**	-0.07	-0.13*	-0.58**	-0.45**	-0.45**	-				
8	반감	-0.30**	-0.12*	-0.13*	-0.48**	-0.38**	-0.48**	0.59**	-			
9	불안	-0.07	0.14**	0.09	-0.52**	-0.24**	-0.20**	0.54**	0.45**	-		
10	탈진	-0.17**	0.03	0.01	-0.52**	-0.29**	-0.42**	0.61**	0.64**	0.62**	-	
11	냉담	-0.37**	-0.11*	-0.09	-0.48**	-0.45**	-0.49**	0.65**	0.67**	0.45**	0.71**	-
전체	평균	4.51	3.30	3.46	3.29	3.53	2.97	2.28	3.04	2.40	2.32	2.23
	(SD)	(0.91)	(1.14)	(1.12)	(0.81)	(0.62)	(0.75)	(0.98)	(1.12)	(0.86)	(0.99)	(1.02)
일반	평균	4.32	3.19	3.23	3.19	3.45	2.83	2.47	3.27	2.44	2.43	2.36
	(SD)	(0.91)	(1.12)	(1.09)	(0.82)	(0.63)	(0.72)	(0.99)	(1.09)	(0.85)	(1.00)	(1.05)
영재	평균	4.96	3.55	4.03	3.53	3.74	3.32	1.81	2.46	2.30	2.04	1.89
	(SD)	(0.73)	(1.15)	(0.99)	(0.72)	(0.55)	(0.71)	(0.79)	(1.00)	(0.88)	(0.93)	(0.86)

* $p < .05$, ** $p < .01$

근, 및 수행회피에 따라서 몇 개의 하위 중학생 집단이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1단계에서는 Ward의 위계적 군집 분석(제곱 유클리디안 거리 간격 적용)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 및 덴드로그램(Dendrogram)의 양상을 검토하고, 더불어 군집의 의미있는 해석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자료에는 총 4개의 군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단계에서는 군집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사용한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편 각 군집변인의 평균 점수의 프로파일 양상에 따라서 각 군집별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즉 ① 적극형, ② 숙달형, ③ 평균형, ④ 무기력형이다. 그림 1에 제시된 프로파일 유형을 참고해 볼 때, 먼저 첫 번째 유형은 3개의 목표지향이 모두 높아 성공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적극형’(31.3%)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숙달목표만 높고, 수행접근 및 회피가 매우 낮아, 이를 ‘숙달형’(22.3%)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는 숙달목표가 낮고, 수행접근 및 회피가 평균수준이며, 가장 많은 학생이 포함된 전형적(prototypical)인 집단으로 이를 ‘평균

표 3. 군집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의 평균차이

변인	성취목표지향성의 군집 유형								F(3, 332)	η^2
	① 적극형		② 숙달형		③ 평균형		④ 무기력형			
	M (SD)	수준	M (SD)	수준	M (SD)	수준	M (SD)	수준		
숙달목표	.82 (.51)	매우 높음	.33 (.59)	높음	-.36 (.59)	낮음	-1.81 (.78)	매우 낮음	207.96**	.65
수행접근	.93 (.69)	매우 높음	-.86 (.48)	매우 낮음	.18 (.51)	평균	-1.43 (.51)	매우 낮음	235.47**	.68
수행회피	1.01 (.64)	매우 높음	-.79 (.62)	매우 낮음	.03 (.50)	평균	-1.32 (.66)	매우 낮음	208.72**	.65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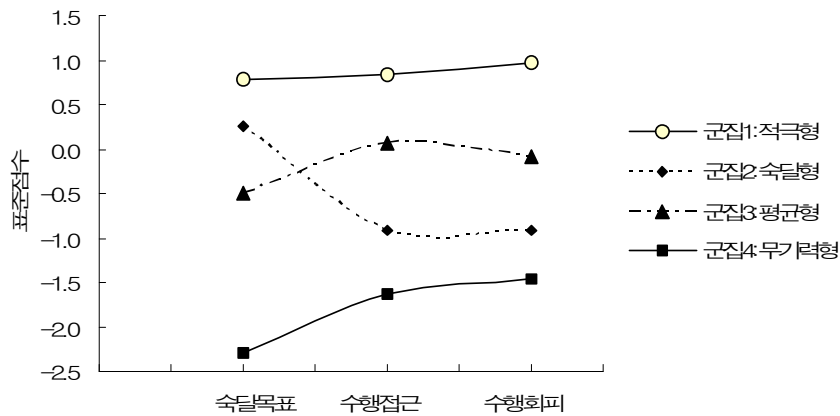


그림 1. 성취목표지향성의 프로파일 유형

형'(35.1%)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3개의 목표지향이 모두 낮은, 일종의 ‘비참여 (disengaged)’ 유형으로 이를 본 연구에서는 ‘무기력형’(11.3%)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최종 선정된 4개의 군집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군집 유형에 따른 각 하위 척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고($p < .01$), 효과 크기(η^2)도 .65~.68 수준으로 비교적 높았다. Tukey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숙달목표의 경우 군집 ①>②>③>④, 수행접근과 수행회피는 모두 군집 ①>③>②>④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성별 및 영재성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 차이

먼저 성별에 따라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1.71$, $df=3$, $p>.05$ 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프로파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영재성에 따른 성취목표

지향성의 프로파일 차이를 알아본 결과, $\chi^2=36.08$, $df=3$, $p<.01$ 이었다. 구체적으로 표 4를 살펴볼 때, 적극형에서는 영재 집단이 54.2%로 일반집단(22.1%)이나 전체집단(31.3%)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숙달형과 평균형에서는 영재보다는 일반집단의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무기력형에서는 영재가 3.1%인 반면, 일반 학생의 비율이 13.6%로 매우 높은 경향

표 4. 영재성과 프로파일에 따른 분포 차이

구 분		프로파일					$\chi^2(3)$
		적극형	숙달형	평균형	무기력형	계	
영재	n	52	18	23	3	96	36.08**
	(%)	(54.2)	(18.8)	(24.0)	(3.1)	(100.0)	
일반	n	53	57	95	35	240	
	(%)	(22.1)	(23.8)	(39.6)	(14.6)	(100.0)	
계	n	105	75	118	38	336	
	(%)	(31.3)	(22.3)	(35.1)	(11.3)	(100.0)	

* $p<.05$, ** $p<.01$

표 5. 2-way MANOVA 및 ANOVA 분석 결과(자기효능감)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 랏다	F
영재성	자신감		.01
	자기조절효능감	.96**	7.97**
	과제난이도선호		8.37**
프로파일	자신감		5.26**
	자기조절효능감	.89**	7.84**
	과제난이도선호		7.91**
영재성 * 프로파일	자신감		4.09**
	자기조절효능감	.93**	1.87
	과제난이도선호선호		.34

* $p<.05$, ** $p<.01$

이 있었다.

영재와 일반학생의 프로파일 유형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영재와 일반학생의 프로파일 유형별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way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분석 결과, 영재성과 프로파일의 상호작용은 [Wilks' 람다=.93, F=2.81, 부분 η^2 =.03], 프로파일의 효과는 [Wilks' 람다=.89, F=4.37, 부분 η^2 =.03], 영재성의 효과는 [Wilks' 람다=.96, F=5.12, 부분 η^2 =.03] 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후속된 단변량 분산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구인 중 자신감 척도에서만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다($p < .01$). 한편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척도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프로파일 및 영재성 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 < .01$).

먼저 '자신감' 척도에서 나타난 영재와 일반 학생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사후분석을 위하여,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극형'(F=7.31, $p < .01$)에서는 영재집단, '무기력형'(F=8.83, $p < .01$)에서는 일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신감 수준을 보였다(그림 2 참고). 한편 나머지 유형에서는 영재와 일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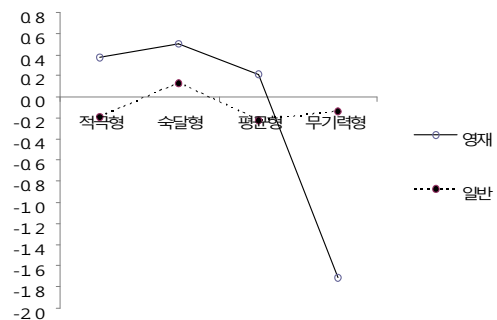


그림 2. 영재성과 프로파일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

표 6. 영재성 및 프로파일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

구분		성취목표지향성의 군집			
		① 적극형	② 숙달형	③ 평균형	④ 무기력형
		M (SD)	M (SD)	M (SD)	M (SD)
자신감	영재	0.37 (0.80)	0.51 (0.92)	0.22 (0.76)	-1.71 (1.08)
	일반	-0.19 (1.18)	0.13 (0.96)	-0.22 (0.90)	-0.14 (1.13)
	계	0.09 (1.04)	0.22 (0.96)	-0.13 (0.89)	-0.26 (1.19)
효능감	영재	0.36 (0.83)	0.65 (1.01)	0.09 (0.88)	-0.28 (0.86)
	일반	0.34 (0.80)	0.10 (0.78)	-0.10 (0.85)	-1.31 (1.16)
	계	0.35a (0.81)	0.23ab (0.87)	-0.06b (0.86)	-1.23 (1.16)
과제 난이도 선호	영재	0.44 (0.81)	0.84 (0.85)	0.43 (1.12)	-0.85 (1.26)
	일반	-0.06 (0.92)	0.18 (0.89)	-0.20 (0.80)	-0.97 (1.12)
	계	0.19ab (0.90)	0.34a (0.92)	-0.07b (0.90)	-0.96 (1.11)

* $p < .05$, ** $p < .01$; 동일한 아래첨자 기호의 경우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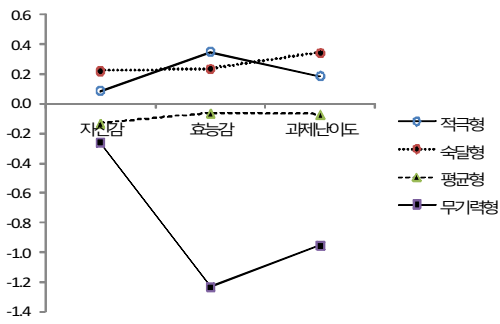


그림 3. 프로파일에 따른 자기효능감 하위척도의 차이

의한 단순 주효과가 없었다.

한편 영재성과 프로파일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영재성 및 프로파일의 주효과(main effect)만이 나타난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를 위해서는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고). 성취목표지향성의 군집 유형별 구체적인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숙달형’과 ‘적극형’은 가장 높은 수준의 평균을 보였고, 이들 두 유형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적극형’과 ‘숙달형’은 ‘무기력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수준을 보였으나, ‘평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적극형’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숙달형’은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만 ‘평균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보였다. 또한 ‘평균형’의 경우는 ‘무기력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경향을 보였다.

영재와 일반학생의 프로파일 유형별 학업소진의 차이

영재와 일반학생의 프로파일 유형별로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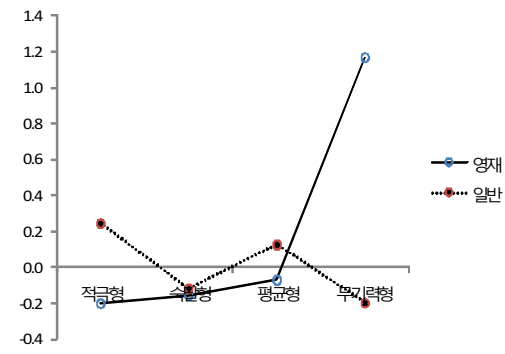
소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way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영재성과 프로파일 간 상호작용 및 프로파일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2$). 후속된 단변량 분산분석 결과, 학업소진의 하위 구인 중 불안 척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한편 나머지 척도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무능력’과 ‘냉담’의 하위척도에서만 프로파일 유형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효과(main effect)를 보였다($p < .01$).

먼저 ‘불안’ 척도에서 나타난 영재와 일반학

표 7. 2-way MANOVA 및 ANOVA 분석 결과 (학업소진)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 랏다	F
영재성	무능력		5.07*
	반감		11.58**
	불안	.93**	.92
	탈진		.43
	냉담		1.12
프로파일	무능력		3.55*
	반감		1.62
	불안	.93	1.25
	탈진		1.95
영재성 * 프로파일	냉담		5.83**
	무능력		.95
	반감		.52
	불안	.95	2.96**
프로파일	탈진		1.94
	냉담		.52

* $p < .05$, ** $p < .01$



a
그림 4. 영재성과 프로파일에 따른 불안의 차이

생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사후분석을 위하여,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극형’(F=5.27, $p < .05$)에서는 일반 집단이, ‘무기력형’(F=5.25, $p < .05$)에서는 영재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불안수준을 보였고(그림 4 참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영재와 일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영재성과 프로파일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프로파일의 주효과가 나타난

표 8. 영재성 및 프로파일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

변인		성취목표지향성의 군집			
		① 적극형	② 숙달형	③ 평균형	④ 무기력형
		M (SD)	M (SD)	M (SD)	M (SD)
무능력	영재	-0.59 (0.73)	-0.49 (0.91)	-0.39 (0.80)	0.80 (0.65)
	일반	0.10 (0.99)	-0.03 (1.08)	0.25 (0.91)	0.54 (1.09)
	전체	-0.24a (0.93)	-0.14ab (1.06)	0.12bc (0.92)	0.56c (1.05)
반감	영재	-0.61 (0.86)	-0.46 (1.09)	-0.45 (0.79)	0.20 (0.98)
	일반	0.20 (1.05)	-0.01 (0.98)	0.19 (0.85)	0.62 (1.01)
	전체	-0.20 (1.04)	-0.12 (1.02)	0.07 (0.87)	0.59 (1.00)
불안	영재	-0.20 (1.03)	-0.15 (1.24)	-0.07 (0.76)	1.17 (1.07)
	일반	0.24 (1.16)	-0.12 (0.96)	0.13 (0.86)	-0.20 (1.02)
	전체	0.02 (1.12)	-0.13 (1.02)	0.09 (0.84)	-0.09 (1.08)
탈진	영재	-0.47 (0.85)	-0.12 (1.03)	-0.09 (0.99)	0.62 (0.58)
	일반	0.13 (1.12)	-0.18 (0.96)	0.25 (0.88)	0.20 (1.14)
	전체	-0.17 (1.04)	-0.16 (0.97)	0.18 (0.91)	0.23 (1.11)
냉담	영재	-0.41 (0.83)	-0.46 (0.82)	-0.23 (0.76)	1.08 (0.74)
	일반	-0.06 (1.05)	-0.15 (1.00)	0.18 (0.88)	0.74 (1.18)
	전체	-0.24a (0.96)	-0.22ab (0.96)	0.10b (0.87)	0.77 (1.14)

* $p < .05$, ** $p < .01$; ‘무능력’과 ‘냉담’에서 동일한 아래첨자 기호의 경우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 > .05$)(Tukey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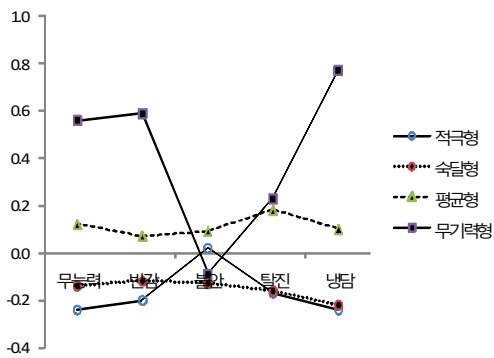


그림 5. 프로파일에 따른 학업소진 하위척도의 차이

‘무능력’과 ‘냉담’에 대한 *Tukey*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참고). 그 결과, ‘적극형’과 ‘숙달형’, ‘숙달형’과 ‘평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업소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숙달형’과 ‘적극형’은 ‘무기력형’ 보다는, 그리고 ‘적극형’은 ‘평균형’ 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무능력감’과 ‘냉담’의 경향을 보였다.

한편 ‘평균형’은 ‘무기력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냉담’의 경향을 보였고, ‘무능력감’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림 5 참고).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습자 프로파일의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영재집단을 포함한 336명의 표본을 활용하여서 개인-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성취목표지향성(Elliot, 1999; Elliot & McGregor, 2001; Pintrich, 2000)의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재성 및 성별에 따른 프로파일의 분포 차이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 및 학업소진 측면에서 각 프로파

일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성에 따라 이러한 프로파일의 특징에서 차이를 갖게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중학생 표본에서 도출된 4가지의 성취목표지향성 즉, ‘적극형’, ‘숙달형’, ‘평균형’, ‘무기력형’은 기존의 선행연구(국중학, 2009; 광미숙, 2009; 김유진, 2009; 나동진, 2010)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접근에 비하여 회피 경향이 뚜렷한 ‘회피’ 유형이 도출되지 않았고, 접근과 회피 경향이 모두 높은 ‘적극형’이 파악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선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접근과 회피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을 연구한 한양명희와 오종철(2006)에 따르면, 접근 뿐 아니라 회피도 높은 집단이 전체 표본의 12.5%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집단의 크기도 2번째로 크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 대상의 한순미(2003) 연구에서도 3가지 성취목표지향성이 모두 높은 경우가 약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접근’과 ‘회피’ 경향이 뚜렷이 분리되지 않았던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보다 다차원적인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를 사용해 봄으로써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향후 2요인, 3요인, 4요인 등 다양한 요인 수에 기반한 프로파일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Tuominen-Soini, et al., 2008)에서는 회피경향

(avoidance tendency)만을 측정하는 하위구인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약 6%의 표본이 회피지향적인 경향을 갖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정교한 학습자 분류(Pastor, et al., 2007)를 위하여 향후 보다 분화된 다차원 구조를 가진 척도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재성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비교적 일관적이지 않은데, 일부 선행연구(곽미숙, 2009; 김유진, 2009)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동진, 201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영재성에 따른 프로파일의 차이는 특히 적극형과 무기력형에서 두드러지게 파악되었다. 일반학생의 경우는 평균형(39.6%)-숙달형(23.8%)-적극형(22.1%)-무기력형(14.6%)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영재는 적극형(54.2%)과 평균형(24.0%)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무기력형(3.1%)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셋째, 도출된 성취목표지향성의 4가지 유형에 대한 학습자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학업소진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적극형’과 ‘숙달형’의 학습자들은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 이들은 ‘평균형’과 ‘무기력형’에 비하여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업소진이 낮은 등 적응적인 학습자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영재성에 따라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동일한 유형에 분류되더라도 영재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하여 좀 더 적응적인 특성을 보였다.

다만 일부 하위척도에서는 다소 차별적인 양상이 파악되었는데, 예컨대, 숙달형이나 평균형에 속한 영재와 일반학생 간에는 ‘자신감’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적극형의 영재는 일반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신감을 가졌다. 반면 표본의 특성상 약 3.1%(3명)만이 포함되었지만, 무기력형의 영재는 오히려 일반학생보다도 유의하게 낮은 ‘자신감’ 수준을 보였다. 한편 주관적 안녕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써 포함된 학업소진의 경향을 살펴보면, ‘무능력’과 ‘반감’에서 영재들이 더 낮은 학업소진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무능력’과 ‘냉담’ 측면에서 프로파일 유형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극형과 숙달형이 평균형이나 무기력형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소진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불안’에서는 영재성과 프로파일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즉 무기력형의 영재들은 일반학생보다 더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고, 적극형의 영재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낮은 불안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평균형과 무기력형에서는 영재성에 따른 프로파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영재와 일반집단을 구분짓는 프로파일 유형은 적극형과 무기력형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적극형은 숙달뿐 아니라 수행접근 및 회피 경향도 모두 높은 집단으로 영재들의 분포가 높고, 숙달형과 함께 가장 적응적이며 적극적인 학습자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중다목표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수행회피가 높을 때조차도 수행접근과 숙달목표가 높으면 학업수행에 적응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행회피의 부적응적인 속성을 숙달목표와 수행접근이 상쇄시키는 역할을 담

당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측면으로는 본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가장 적응적인 유형으로 파악된 숙달형과 적극형에 속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영재의 약 54%가 포함되어 있는 적극형은 가장 적응적인 유형으로 탐색되었지만, 이들은 수행회피도 함께 높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재’로 불리어지는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나 사교육 등의 이른바 ‘만들어진 영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취도뿐 아니라 다양한 학업 결과변인(academic outcome)들을 투입하고, 면접 및 관찰법과 같은 질적인 접근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 측면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보다 적응적인 학습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시사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재집단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재와 일반학생의 프로파일 양상을 비교하고, 자기효능감과 학업소진과 같은 비교적 상반되는 학습자 특성 변인을 포함함으로써 각 성취목표지향성의 유형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둘째, 이와 같은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변

인-중심적 접근 기법에서는 변인과 변인 관계가 모집단 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더라도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처치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을 분류함으로써 각 학습자 집단 별로 보다 적응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 도출을 위하여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과 같은 보다 견고한 방법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PA의 경우는 ‘모형’에 기반하고, 모형 평가 기준이 제공되며, 횡단 프로파일뿐 아니라 종단 프로파일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및 특정 학년의 영재 및 일반학생이 표본으로 선택되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후속적으로 보다 다양한 표본 구성을 포함한 교차 타당화(cross-validation)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미숙 (2009). 초등학생의 성취목표 지향 프로파일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중학 (2009). 고등학생의 성취목표 지향 프로파일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교육심리연구*, 11, 1-19.
- 김아영 (2002).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학회*, 16(1), 1-38.

- 김유진 (2009). 성취목표지향 프로파일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의 차이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동진 (2010). 영재와 일반학생의 성취목표지향의 비교. *교육학 연구*, 48(3), 25-44.
- 박병기, 이종욱 (2005). 2*2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9(1), 327-352.
- 신현숙, 류정희, 안정은 (2010). 성취목표지향성 프로파일에 따른 중학생의 학습기술과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학 연구*, 48(2), 45-66.
- 양명희, 오종철 (2006). 2x2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검토. *교육심리연구*, 20(3), 745-764.
- 영재교육진흥법 (2011).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5(3), 59-78.
- 이주화, 김아영 (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개발. *교육심리연구*. 19(1), 311-325.
- 조승우 · 김아영 (1998). 초등학교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7, 71-88.
- 조준환 (2010). 청소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과 학교의 목표 및 사회적 지지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미 (2003). 중다목표관점에서의 성취목표와 자기조절 학습전략 사용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3), 291-312.
- 홍승표 (2010). 영재 · 잠재영재 · 일반학생의 학교 소진 경험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9(1), 75-96.
- Bandura, A. L.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arron, K. E., & Harackiewicz, J. M. (2001). Achievement goals and optimal motivation: testing multiple goal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706-722.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 169-189.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Elliot A. J., & Harackiewicz, J. M. (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61-475.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01-519.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147-205. Washington, DC: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ackiewicz, J. M., Barron, K. E., Pintrich, P., Elliot, A. J., & Thrash, T. (2002). Revision of achievement goal theory: necessary and illuminat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638-645.

- Midgley, C., Kaplan, A., & Middleton, M. (2001). Performance-approach goals: Good for what, for whom, under what circumstances, and at what cos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77-86.
- Midgley, C., Maehr, M., Hruda, L. et al. (2000). *Manual for the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Scales*. University of Michigan
- Magnusson, D. (1998). The logic and implications of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 Cairns, L. Bergman, & J. Kagan (Eds.), *Methods and models for studying the individual: Essays in honor of Marian Radke-Yarrow* (pp.33-64). Thousand Oaks, CA: Sage.
- Nicholls, J. G. (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 328-346.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 8-47.
- Pintrich, P. R. (2000). An achievement goal theory perspective on issues in motivation terminology, theory, and resear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92-104.
- Salmela-Aro, K., Tolvanen, A., & Nurmi, J. (2009). Achievement strategies during university studies predict early career burnout and eng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162-172.
- Schaufeli, W. B., Martez, I. M., Marques Pinto, A.,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 Tuominen-Soini, H., Salmela-Aro, K., & Niemivirta, M. (2008).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A person-centered analysis. *Learning and Instruction, 18*, 251-266.

원고접수일 : 2012. 0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3. 30.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4. 03.

A Person-Centered Analysi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for Gifted and Non-Gifted 7th Graders

Shin Yina

Sohn Wonso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stinct student profiles emerged from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in Korean samples of the gifted and non-gifted 7th graders. Additionally, profile differences in terms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were scrutinized, as well as differences in student profiles by gender and giftedness. Four groups of students with uniqu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rofiles were identified by a cluster analysis: (a) success-oriented(31.3%), (b) mastery-oriented(22.3%), (c) typical(35.1%), and (d) disengaged(11.3%) profiles. The profile difference between gender groups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between the giftedness groups. Observed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indicated that goals related to self-improvement and active engagement with learning were positively related to self-efficacy, whereas avoidance tendencies and disengaged typ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Finding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including measures of learners'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evaluating the rol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in learning and achievement. Finally, the usefulness of a person-centered approach in understanding groups of learners with different types of needs and problems was discussed.

Key words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efficacy, academic burnout, cluster analysis, a person-centered approach, gifted students